



크리스토퍼 맥휴 _ Dr Christopher McHugh

제주 화산송이와의 조응

이것은 다양한 질료의 테스트 피스로 구성된 실험적인 연구이다.

마지막 시리즈의 용기들은 가마에서 유리 프리트를 형성하는 '파트 드 베르(pâte de verr)'기법을 연상시키는 공정을 이용해 하소한 고령토와 석고 몰드에 의해 만들어지고 소성되었다. 몰드의 내부는 질감을 입히거나 단순한 이미지가 새겨져 있다.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 유행으로 제주 레시던시 프로그램으로 예정되었던 프로젝트가 서신을 통한 비대면 프로젝트로 변경된 것에 대한 반응이다. 또한 인류학자 팀 잉골드의 '조응' 개념에 대한 언급이기도 하며, 여기서 만드는 행위는 물질과 작가의 감각 의식 사이의 상호 건설적인 관계에 의존한다. 제주 화산 송이에 관한 나 자신의 조응에는 일련의 실험이 포함되었는데, 이 실험을 통해 나는 화산송이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 점차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. 비록 그 과정이 비교적으로 비호환적인 물질을 길들이려는 시도가 수반되는 연금술적인 과정에 가까웠지만, 화산송이의 고유의 재료적 특성을 수용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었다. 결과작들은 원시적이고 고고학적 외관을 가지고 있으며 화산 물질의 자연적 특성들은 문화적 레퍼런스에도 결합되어 있다.

Corresponding with Jeju Scoria

This is an experimental body of work, comprising a range of material test pieces. The final series of vessels was formed and fired in molochite and plaster moulds using a process reminiscent of the *pâte de verre* technique of kiln forming glass frit. The interiors of the moulds were texturised or incised with simple imagery.

The title responds to the project having been modified from a residency on Jeju Island to a postal project due to the coronavirus pandemic. It is also a reference to anthropologist Tim Ingold's concept of 'correspondence', where the act of making is dependent upon a mutually construc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material and the sensory awareness of the maker. My own correspondence with Jeju scoria, involved a series of experiments through which I gradually gained an understanding of how I could work with it. Although this was an almost alchemical process which involved attempting to tame this relatively non-compliant material, it was also essential to embrace the particular material properties of the scoria. The resulting pieces have a primitive, archaeological appearance, where the natural qualities of this volcanic material merge with cultural references.